

	보도자료	충남도당
2015년 11월 24일(화)	대변인: 어기구(당진 지역위원장) 담 당: 이영구 정책실장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319-37 승지빌딩 503호 / 041-569-1500, 010-2390-6824		

새정치민주연합 전국노동위, **24일** 충청지역 방문 노동부분 정책당원 입당 기자회견 및 노동현안 청취

새정치민주연합 전국노동위원회(위원장 이용득)가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고 시도별 노동부분 정책당원 입당식을 갖기 위해 전국을 순회중인 가운데 24일과 25일 양일간 대전, 충남, 충북, 세종 등 충청지역을 방문한다.

나소열 충남도당 위원장은 “전국노동위원회의 이번 방문은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 비정규직 양산에 불과한 박근혜 정부의 가짜 노동개혁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겠다”고 밝힌 뒤 “이 자리는 대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 청년고용 의무할당제 등 고용안정을 위해 충청지역 노동계 전반의 의견 수렴을 위한 자리”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이용득 최고위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법안심사 과정에서 정

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개악법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면서, 우리 당의 진짜 노동개혁인 △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차별해소 △ 고용보험 보장성 강화를 관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고단한 현장의 노동자와 어깨를 마주할 것이니 충청지역 노동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고 요청할 예정이다.

전국노동위원회의 충청지역 방문에는 이용득 최고위원(전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이석행 수석부위원장(전 민주노총 위원장), 나소열 충남도당 위원장 및 지역 국회의원, 핵심 당직자 등 3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국노동위원회는 오는 24일(화) 오전 10시,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충청지역 노동계 인사 200여 명의 정책당원 입당 및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국플랜트건설노조 간담회(서산, 24일 11:30), 대전택시노조 분회 위원장단 간담회(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 24일 15:30), 한국노총 충북본부 간담회(청주, 24일 18:00), 노조 간담회(OB맥주 청원공장, 25일 10:00)를 계속해서 진행한다.

<붙임 1>

충청권 지역간담회 및 집단입당식

○ 충청권 지역 간담회 및 입당식(안)

- 일시 : 11월 24일(화) 10:00 ~ 25일(수) 13:00
- 참석대상 : 이용득 전국노동위원장, 이석행 수석부위원장 및 부위원장단,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 충청지역 국회의원, 충청지역 시·도당 위원장, 충청지역 시·도당 노동위원장

<행사 세부 프로그램>

일 시		방문처	내 용
11월 24일(화)~ 25일(수)	(24일) 10:00~	충남도청 5층 브리핑룸 (충남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514호)	정책권리당원(200명) 집단입당식
	1시간 10분 소요, 53km		
	11:30~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충남지부 (충남 서산시 대산읍 충의로 1970-1 2층)	간담회
	2시간 소요, 138km		
	15:30~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 (대전 서구 둔산2동 1304)	대전택시노조 분회 위원장 간담회
	대전 본부에서 충북본부까지 55분, 44km		
	18:00~	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2순환로 1814-39)	한국노총 충북본부 만찬 간담회
	(25일) 10:00~	OB맥주 청원 공장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현도공단로 151)	노조 간담회

<붙임 2>

새정치민주연합 성명서

오늘 충청지역에서 새로운 노동자 식구들을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당원으로 맞이하게 됨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정책당원은 노동·온라인·직능·재외국민 등의 부문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당원을 말하며, 앞으로 우리 당의 노동분야 정책에 많은 도움을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법안, 즉 5대 법안과 2개 행정지침은 “쉬운 해고, 임금 삭감, 비정규직 양산”에 불과하며, 이러한 악법과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전달한다.

우리 당은 지속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노동기본권 강화를 당론으로 추진해 왔으며, 재벌·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제고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밝힌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박근혜표 가짜 노동개혁을 즉각 철회하고, 청년일자리를 만들고,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고용안정과 임금인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다.

재벌개혁을 단행하지 않고서는 소득불균형 해소, 청년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 완화와 같은 노동시장 안정은 더 이상 없다는 점을 박근혜 정부

는 직시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 당은 법안심사 과정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개악법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면서, 대체 토론과정에서 우리 당의 진짜 노동개혁인 △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차별해소 △ 고용보험 보장성 강화를 관철해 나갈 것이다.

대한민국은 위기상황에 놓여 있다. 정부의 정책 실패로 고용 없는 저성장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사상 초유의 청년 실업률, 사상 최악의 소득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GDP 대비 40%(580조)에 달하는 국가채무와 113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대책을 잘 세우지 않으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

충청지역도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해 기업이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가고, 지방의 대학도 수도권으로 이전하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균형발전정책을 시행한지 11년이 경과되었으나 수도권 규제완화 등으로 수도권의 인구집중 및 지역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충청지역의 노동자들과 함께 대한민국 경제 심장인 충청을, 그리고 대한민국을 바꿔 나가고자 한다. 아울러 노동법 개정과 관련해 친노동자적 입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 정치를 바꾸기 위해 노동자들이 그 중심에 서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고단한 현장의 충청지역 노동자들과 어깨를 마주할 것이다.

충청지역 노동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2015년 11월 24일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전국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용득

새정치민주연합 충남도당 위원장 나소열

새정치민주연합 충남도당 노동위원장 이규희

새정치민주연합 충남도당 지역위원장 일 동